

마다 쉬어갔다 한다.

6) 암자바위

사곡동 뒷산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에서 불공을 드렸다 하여 암자바위라 한다. 지금도 간혹 자식 없는 여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한다.

제13절 신흥2리(新興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현종산 기슭에서 발원(發源)되는 소하천이 동해로 흐르고 산 너머에는 덕신2리가 있다. 서쪽은 중첩된 산이 기양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기성면과 경계를 하고 북쪽은 신흥1리 대잠동과 인접하고 있다. 마을회관이 2002년에 신축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북수골(北水谷)

옛날에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던 사람이 부자(富者)가 되어 오래 살도록 하는 뜻에서 부수동이라 하였다 하며 그 후 인동 장씨(仁同張氏)인 중엽(重燁)이라는 선비가 입주하면서 마을 앞의 냇물이 북쪽으로 흐른다고 하여 북수골(北水谷)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2) 이울(李蔚·以蔚)

1627년경에 평창군수(平昌郡守)를 지낸 이대인(李大仁)이라는 선비가 자기의 성(姓)을 따서 이울(李蔚)이라 하였고 또 울진군과 평해군의 경계가 이 마을의 남단(南端)이므로 이 마을부터 울진(蔚珍)이라 하여 이울(以蔚)이라 전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57세대가 거주하며 인동 장씨(仁同張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광산 노씨(光山盧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효자들

조선시대에 남북으로 왕래하는 상인들의 대로(大路)가 이 마을의 들을 가로질러 나 있었는데 상인들의 패싸움으로 살인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살치들이라 하였다가 효자각(孝子閣)이 세워진 이후에는 효자들이라 하였다고 한다.

2) 북수동 성황당(城隍堂)

성황신을 모시는 곳으로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마을의 무병 무사와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다가 1990년 이후 폐지하였다.

3) 이율동 성황당(城隍堂)

400년~500년쯤 된 큰 느티나무를 성황신으로 모시는데 이 마을은 특이하게 삼신위(三神位)이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제관을 엄선하여 3일 전부터 금기(禁忌)하고 목욕제계(沐浴齊戒)하여 마을의 무병 무사와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14절 오산1리(烏山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7번 국도 서편에 현종산 지맥(支脈)이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덕신1리와 경계를 이루고 현종산이 바라보인다. 북쪽은 오산2리며, 마을 중앙에 오두산(烏頭山)이 가로 놓여있다. 마을회관은 2010년에 건립되었으며, 2010년에 오산보건진료소가 조성되었다.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갯초들

소하천변에 있던 갯벌을 제방을 축조하여 농경지로 개간하여 들이 되었다 하여 갯초들이라 한다.